

“한전공대 부지 광주와 밀당 않겠다”

김영록 당선인 “에너지산업 성과 공유엔 상생방안으로 추진” “나주 유치 공약 후퇴 아니냐” 추측 속 새 접근법 주목

“에너지융복합산업 성과 공유한다면 한전공대 부지 문제 크게 밀고 당기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전공대 부지 문제를 놓고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이 21일 전남개발공사 대외설명회에서 열린 민선 7기 준비를 위한 도정 주요 현안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도청 실·국장에게 “말 그대로 광주·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광주·전남 상생을 강조한 새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융복합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만 한다면 굳이 부지를 가지고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 해결의 새 해법인 셈이다.

하지만 김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공약과 차이가 있는데다,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여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당선인은 지난 4월 10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전공대를 반드시 나주에 유치해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미국 MIT, 중국 칭화대와 같은 세계적인 공대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광주와 전남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저마다 한전공대 유치 공약을 하면서 지역 상생 분위기를 깬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가 흐름에

편승한 것이었다. 김 당선인 측에서는 선거 출마자들이 입지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도록 강요받은 분위기에서 나온 소신 발언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이 광주와의 ‘밀고 당기기’를 경계하는 입장으로 선화하면서 결국 나주 유치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김 당선인은 오후에 지속한 보고회에서 “한전공대를 전남에 유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광주와 전남이 협력해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등의 성과를 키우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주요 현안보고는 일자리·경제·기획, SOC·관광, 농림·해양·수산, 복지·안전·환경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공정·투명한 희망 인사시스템 도입”

광주혁신위, 시민불편신고센터·120콜센터 통합 운영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도 혁신과제 선정

이윤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광주혁신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혁신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민불편신고센터와 120 콜센터 등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혁신위원회 박재영 시민권분과 위원장은 21일 서구 광주도시공사 혁신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직원이 인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업무에 애정과 긍지,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희망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실·측근 인사나 청탁인사는 철저히 배격한다는 이 당선인의 인사 원칙에 따라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광주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인사혁신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칙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주권분과위원회는 혁신위 내 인분과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괄 기획과 지원, 취임준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 분과위원회는 민선 7기 광주시정 방향에 시민소통 과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운영했던 시민불편 온라인 플랫폼 ‘광주행복 1번가’를 취임 후에도 지속해서 운영할 계

획이다.

또 시민불편신고센터와 120 콜센터 등의 통합관리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광주정신을 시정에 반영하는 ‘518인 시민통합위원회’ 설치도 혁신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일반과제로는 광주시민권리장전 제정·선포, 광주시민정책평가단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주권위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부가 공존하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구현하기 위한 큰 축으로 시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광주가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감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시정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우리는 전남 안전보안관” 21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 안전보안관 교육 및 발대식’에서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과 안전보안관 교육생, 시군 담당 공무원 등 350여명이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에 안전 보안관 떴다

소방대원 등 280명 발대식 불법주정차 등 7대 관행 신고

전남에 안전보안관이 떴다.

전남도는 21일 도청 왕인실에서 안전보안관, 시민단체 회원 등 350여명과 함께 고질적인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전남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열었다. 안전보안관은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실마’ 또는 ‘나만 아니면 된다’ 등 사회에 만연된 안전 경시풍조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5일까지 시·군과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안전보안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 1차 교육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 안전신문고 모니터봉사단원,

리·통장 등 280명을 선발했다.

교육을 수료하고 증서를 받은 안전보안관은 7월부터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위반 행위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구멍조끼와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7대 안전 무시 관행 등을 찾아서 신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군 공무원과 함께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전남도는 안전보안관 구성 인원 확대를 위해 추가 공개 모집해 2차 교육(8-9월), 3차 교육(10-11월)을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안전보안관증도 교부한다.

시·군에서는 안전점검 주간 운영, 월별 안전데마 선정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 근절활동을 펼치고 참여한 안전보안관에게는 1일 4만원의 실비를 지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23일 연다

정책의제 6개 안전 상정

광주시는 제2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당별로 발굴된 정책의제 6개 안전을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상정된 안건은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제안 ▲안전한 진로체험을 위한 진로체험 버스 운영에 관한 제안 ▲청소년들의 진로체험 비용 지원에 관한 제안 ▲학교 내 생활복 도입 및 자유착용에 관한 제안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및 현장교육에 관한 제안 ▲학생들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 실용화에 관한 제안 등이다.

또 어린이·청소년의회 발전방향,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자유발언도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돼 검토 후 정책 반영이 결정된다.

1차 본회의는 자유롭게 참석해 방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SNS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개원한 제2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교육, 자치, 환경복지)를 구성하고 소속 분야 청소년 정책 발굴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애리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안건들이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금형인 한마당 축제 오늘 열린다

DJ센터서 ‘금형인의 날’

광주지역 금형 기업인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제5회 금형인의 날’ 행사가 22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금형인의 날’ 행사는 금형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 상패 전달, 한마당 축제 등 순으로 진행된다.

또 지역경제발전 유공으로 (주)승광 김경봉 대표이사과 (사)한국금형산업진흥회 서연관 팀장이 광주광역시 표창을 받고, 디케이 김보근 대표이사, 모범근로자로 ㈜상오정밀 박창우 부장 등 13명이 우수경영인 표창을 받는다.

올해의 금형인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우성정공 박화석 대표이사에 대해 상패를 전

달하고, 이어 금형인의 ‘한마당 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금형인의 날 행사는 지난 20일부터 4일간 열리는 ‘2018 광주국제 금형산업전’ 기간 중 개최되는 만큼 국제금형산업전 관람 행사도 함께 실시한다.

2018 광주국제 금형산업전은 독일, 일본, 중국 등 14개국 143개사가 350부스를 운영하며 금형가공, 성형기기 등 금형과 소재분야 뿐 아니라, 금속공작, 가공기계 등 기계분야와 생산자동화설비 등 스마트공장 자동화 분야를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제5회 금형인의 날 행사와 제8회 2018 광주국제 금형산업전’이 지역 금형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행안부 공모 선정

광주시의 ‘온라인 민주주의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구축사업이 2018년 행정안전부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에 선정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의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시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억원에 시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토론방 ‘바로소통’을 한 단계 발전시킨 온라인 민주주의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하반기에 새롭게 구축한다.

지난 2016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바로소통’은 시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나 제안이 가능했지만 토론에 국한돼 실제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e.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